

『하생기우전』 여귀인물의 성격 전환 양상과 의미

김현화*

|| 차례 ||

- I. 서론
- II. 여귀인물의 성격 전환 양상
- III. 여귀인물의 성격 전환 의미
- IV. 결론

【국문초록】

『하생기우전』의 여귀는 『최치원』, 『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 등의 작품에 나오는 여귀의 전형에서 탈피한 인물이다. 그 전환 양상은 다음의 세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동태적(動態的) 행보의 여귀라는 점이다. 앞선 작품의 여귀들이 정태적 행보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남자주인공과의 일대일 관계 외에는 달리 구명(求命)의 길을 찾을 수 없었다는 데 있다. 여귀의 동태적 행보는 그녀가 죽은 지 불과 사흘 밖에 되지 않았다는 시간의 공로 때문이기도 하다. 둘째, 『하생기우전』의 여귀는 이승의 목격자가 다수 등장하는 인물로 전환한다. 그간의 여귀들을 목격하는 인물이 남자주인공을 제외하곤 모두 저승의 존재였다는 것과 비교할 때 상당한 변화이다. 다수의 목격자는 여귀의 현실계 복귀를 인정하는 증인 역할을 한다. 셋째, 『하생기우전』의 여귀는 당대인이 공감할 만한 ‘동일시의 세계’를 구축하는 성격으로 전환한다. 여귀의 현실적 문제와 남자주인공의 현실적 문제가 동질성을 띠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여귀인물의 성격 변화는 소설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하생기우전』의 여귀는 상하 계층 간의 소통을 실현한다. 여귀는 운명론적 세계관을 완전히 벗어낸

*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인물은 아니지만 화해와 평등의식을 현실세계에 소통시킨 인물로 거듭난다. 둘째, 『하생기우전』의 여귀는 관습적으로 내려오던 무덤 공간의 성격을 탈피하는 데 기여한다. 여귀들의 개인적 비극사가 담긴 관습적 공간에 사회적 문제를 담아 놓는다. 여귀의 무덤 공간 성격이 달라지면서 남주 주인공의 환경 또한 현실적 문제를 드러내는 공간으로 전환한다.

권력과 암투, 성공과 출세에 대한 사실적 욕망을 담은 무덤 공간은 여귀인물이 그만큼 당대의 현실을 투영하는 현실적 인물로 전환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여귀의 성격 변화는 작품에 리얼리티 살리고자 했던 작가의 창작의식과 연관된다.

주제어 : 하생기우전, 여귀, 고전소설 인물, 인물 성격, 관습적 공간, 창작 기법

I. 서론

한 편의 작품이 지향하는 주제 형성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인물’이다. 인물은 갈등과 반목의 사건을 형성하고, 시공간의 배경을 종횡으로 누비며 가시화하는 가운데, 작품의 궁극적 목표(주제)를 드러내는 주요한 창작 요소이다. 그러므로 인물은 작품 생성의 추동력이자 작가의 창작 욕망을 실현하는 총체적 분신이다. 창작 욕망을 바꾸어 말하면 ‘말하기’ 욕망이다. 당대의 이념과 제도, 최상의 가치와 이상, 관습과 도리에 부합하는 혹은 대응하는 인물을 등장시키고 그 후면에서 작가 자신이 꿈꾸는 삶의 지향점을 언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삶은 그러한 당대의 통념과 제도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속성을 수반하고 있기 마련이다. 불만족스럽고 불안정한 소망 상태는 급기야 현실에 균열이 가도록 하고, 그동안 타인이 경험하지 못한 세계로 자신의 욕망을 확장시켜 놓는다.

애초 문학은 세상에 떠도는 이러한 인간의 미담에 대한 흥미를 노래하거나 이야기로 만드는 데서 출발했고, 점차 ‘누구나 들어봄직한 인물’을 출

현시키는 데 당대의 작가 내지는 독자와 동의했다. 밝고, 의욕 넘치고, 경건하고, 타의 모범이 될 만한 문학적 인물이 전형화된 것이다. 반면 한편에서는 전혀 다른 인물이 모색되었다. 낯설지만 익숙한, 불편하지만 호기심을 자극하는, 어둡고 축축하고 불완전한 이미지의 인물이었다. 여귀는 그러한 전형적 인물 가운데 하나이다.

여귀의 전형이 형성된 배경 안에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억압과 배척이 필연적 단서로 따른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부모의 명에 따라 혼인해야 했던 딸, 전쟁의 폭력 속에서 성적으로 희생당한 여성, 사랑의 자율성을 원천적으로 차단당한 처녀 등 전근대 사회의 제도·이념 속에서 숨죽인 채 살아야 했던 여성들”¹⁾이 여귀로 등장한 사실이 이를 대변한다. 죽어서라도 말하고 싶었던 그 무엇, 그 의문 가득한 출현에 작가와 독자 모두 같은 주파수를 열고 있었기 때문에 여귀인물은 오랜 세월 문학 속에서 유전하며 ‘누구나 들어봄직한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하생기우전』의 여귀는 그러한 서사적 계보를 지닌 인물이며 불완전한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의 세계로 복귀한 인물이다. 저승이나 타국에서의 왕생을 회구하며 떠난 그간의 비운어린 여귀 전형에서 벗어나는 성격을 보여준다. 작가의 내적 욕망과 외적 환경의 총체적 분신이 등장인물인 만큼 이 여귀인물의 성격 변화에 대한 탐문을 통해 『하생기우전』의 소설적 미학과 가치를 밝힐 수 있다. 몽환적 환생의 형태로 복귀하는 인물이긴 하나, 그녀는 소설적 주체의 의지 표명과 흐름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존재이다.

『하생기우전』은 서사적 자아의 확대를 살필 수 있는 작품이자 조선 후기에 보편적으로 등장하는 행복한 결말로의 전향을 불러온 작품²⁾이란 관점에서 정밀한 연구가 선행되었다. 설화 속에 공통적으로 삽입되는 신물과

1) 최기숙, 『처녀귀신-조선시대 여인의 한과 복수』, 문학동네, 2010, p.173.

2) 소재영, 『기재기이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0, p.74.

매개 인물의 등장, 혼사 장애 모티프, 산문과 운문 병용의 변문체 영향을 수용해 현실 중심적·유가적 입신양명을 표현한 획기적 작품³⁾으로 거론되었다. 환생이라는 전기적 모티프의 낭만적 사랑을 통해 애정소설로서의 성격을 다진 논의⁴⁾는 이 작품의 또 다른 문학성을 재고하는 한편, 욕망의 현실성, 서사적 자아의 적극성, 결핍과 해소를 통한 행복한 결말 등에서 작자의 긍정적 운명관, 낙관주의적 세계인식을 읽어낸 논점⁵⁾도 진행되었다. ‘부녀대립-남녀결연 구조’⁶⁾나 ‘기복적 애정 구조’⁷⁾, 내지는 ‘결핍-충족 구조’⁸⁾ 등의 논의는, 『하생기우전』의 서사 구조적 특질을 정교하게 살핀 작업이었다.

한 걸음 나아가 각기 다른 출세담과 애정담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이야기를 통해 대립과 투쟁이 아닌 이해와 포용으로 인간관계를 맺어가야 한다

3) 유기옥, 『기재기이의 소설사적 의의』, 『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전주우석대학, 1992, p.370.

이처럼 『하생기우전』의 전기소설적 특징과 의미에 대해 접근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유정일, 『기재기이의 전기소설적 특징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논문, 2002. 신상필, 『기재기이의 성격과 위상』, 『민족문학사연구』24, 민족문학사학회 민족문화연구소, 2004.

신태수, 『기재기이의 환상성과 교환 가능성의 수용 방향』, 『고소설연구』17, 한국고소설학회, 2004.

최재우, 『기재기이의 장르적 특성과 형상화 의미』,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7.

4) 박태상, 『하생기우전의 미적 가치와 성격』, 『조선조 애정소설 연구』, 태학사, 1996, p.139.

5) 소인호, 『한국전기문학연구』, 국학자료원, 1998, p.229.

6) 정운채, 『하생기우전의 구조적 특성과 서동요의 흔적들』, 『한국시가연구』2, 한국시가학회, 1997.

7) 채연식, 『하생기우전의 구조와 전기소설로서의 미적 가치』, 『동국어문학』10·11합집, 동국대학교사범대학국어교육과, 1999.

8) 최재우, 『하생기우전의 결핍-충족 구조와 그 의미』, 『민족문학사연구』15, 민족문학사연구소, 1999.

는 주제⁹⁾ 성찰은, 유가적 혹은 도가적 이상점에 대한 논의로 고착되어 있던 주제 일변도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점을 시사한다. 아울러 가족이라는 제도와 사회적 권력의 희생양이 된 여인의 육체가 사물화 되어 환상계에 머물다가 현실계로 복귀하는 서사 과정을 살핀 논의¹⁰⁾는 등장인물에 대한 새로운 연구 방향의 경로를 보여준다. 다만 이 모든 논의의 중심 혹은 경계에서 있는 여귀 인물에 대한 집중적 탐색이 미진하다는 결론이다. 즉 선행 연구에서는 여귀의 사고나 행위가 서사 전편의 구조나 주제를 살피는 부수적 기능으로 치부되었다는 의미이다.

본 논문에서는 『하생기우전』의 여귀인물이 전대 작품에서 탈피해 새로운 성격으로 전환하는 시도에 주목하고자 한다. 우선 II장에서는 동태적(動態的) 행보의 여귀, 다중목격자의 출현, 동일시 세계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여귀 인물이 전대의 정태적(靜態的)이고 고립된 전형에서 탈피하는 성격 전환을 살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III장에서는 계층 간의 소통 실현, 관습적 문학 공간의 탈피라는 측면에서 여귀인물의 성격 전환이 갖는 소설적 의미에 대해 짚어 보고자 한다. 등장인물의 구상과 변천에 관심을 두었던 고전소설의 역동성과 무엇보다 인물의 성격 변화를 통해 기존의 창작 방식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창작의식도 살펴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¹¹⁾

9) 안창수, 『하생기우전의 문제 해결 방식과 작가의식』, 『한민족어문학』49, 한민족어문학회, 2006.

10) 정규식, 『하생기우전과 육체의 서사적 재현』, 『한국문학논총』53, 한국문학회, 2009.

11) 본 논문에서 활용할 자료는 고려대 만송문고본을 영인한 소재영의 책이다.(소재영, 『기재기이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0) 이후 면 수만 기록하기로 한다. 아울러 박헌순의 번역을 참고하기로 한다.(박헌순, 『기재기이』, 범우사, 1990)

Ⅱ. 여귀인물의 성격 전환 양상

죽어서도 온전히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현실계로 넘어오는 여귀의 이야기에서 ‘단절’의 경계를 세우지 않았던 당대인의 순환적 의식을 엿본다. 육체적으로야 불연속성을 띠는 시간이겠지만, 영혼의 생명력만큼은 영원하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삶은 순환한다는 것이다. 여귀인물은 자신만의 고유한 공간 안에서 남자주인공과 인연을 맺게 되며 시간의 흐름에 방해받지 않는 형상으로 등장한다. 무덤이라는 공간의 정태성과 늪지 않는 형상의 정형성은 여귀 인물의 사회적 입지와 관련 있다.

『하생기우전』의 여귀는 이러한 전형을 전승한 인물이다. 주목할 점은 그녀가 현실계로 넘어오며 전대 여귀인물의 속성을 탈피해 역동적 행보를 선보이는 한편, 다중의 목격자를 출현시키고 당대인이 공감하는 현상적 문제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의 변모 양상을 통해 고전소설 여귀인물의 서사적 계보를 가늠해 보고, 새로운 인물 구상에 몰두했던 창작의식을 살필 수 있다.

1. 동태적 행보의 여귀

『하생기우전』의 여귀가 머물고 있던 곳은 도성 남문 밖 무덤 공간이다. “어디 하룻밤 묵어갈 곳도 없는”¹²⁾, 인적 없는 후미진 숲에 자리한 무덤이다. “길게 자란 들풀에 싸늘한 안개가 어리고 이슬이 흠뻑 내려 촉촉이 젖어 있는”¹³⁾, 중추 열여드레 날 달밤 속 공간이다. 여귀는 이곳에서 남자주인공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처럼 고적하고 을씨년스럽고 처연하기

12) 無所托宿. 『기재기이』, p.182.

13) 寒煙蔓草 零露瀼瀼. 『기재기이』, p.183.

까지 한 여귀의 환경은 『하생기우전』 안에서 독립적으로 일군 성과가 아니다. 이미 전대의 작품 안에서 구축되어 있던 정태적 환경이 전승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여귀인물의 정태적 환경은 『최치원』에서 먼저 발견된다. 이 작품의 여귀인물은 초현관 앞의 옛무덤 주인들인 팔낭자와 구낭자이다. 『최치원』에서는 여귀가 처한 환경에 대한 묘사나 분위기가 직접 서술되지 않는다. 등장인물의 시편이나 대사 속에서 간접적으로 언급된다. 쌍녀분에 대한 묘사는 최치원의 첫 번째 시편을 통해 드러난다. “적막한 저승 원한의 봄 몇 해던가”¹⁴⁾, “성도 이름도 묻기 어려운 무덤엔 흙먼지만 가득”¹⁵⁾, “적막한 저승(寂寂泉)’, ‘무덤 위에 쌓인 흙먼지(塚頭塵)’ 등의 시구를 통해 여귀의 낮은 상태로 상당한 시간을 고독하게 지냈다는 분위기를 자아낸다.

팔낭자와 구낭자의 처소를 알려주는 시녀의 말에서도 이와 같은 분위기는 감지된다. “아침에 덩불을 헤치고 돌의 먼지를 털어 시를 지으신 곳이 바로 두 낭자의 거처입니다.”¹⁶⁾ 이 표현을 통해 여귀들의 처소가 덩불을 헤치고 들어서야만(披榛) 닿을 수 있을 만큼 산 자의 거리에서 멀리 떨어진 곳, 비석 위에 먼지가 쌓일 만큼(拂石) 외진 곳이라는 사실이 다가온다. 또, “오가는 이 그 누가 길가의 무덤 돌아보리오?”¹⁷⁾, 란 구낭자의 시구에서도 인적 끊긴 적절한 분위기가 그대로 살아난다. 중요한 것은 팔낭자와 구낭자의 행적이 이후 단 한 걸음도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서사가 종결된다는 점이다. 한 마디로 여귀들의 행보가 매우 정태적이라는 점이다.

14) 寂寂 泉扃幾怨春. 이검국·최환, 『신라수이전의 집교와 역주』, 영남대 출판부, 1998, p.122. 『최치원』자료는 『쌍녀분기』란 제명으로 소개된 이 책을 활용한다. 이후 면 수만 적기로 한다.

15) 姓名難問塚頭塵. 『신라수이전의 집교와 역주』, p.122.

16) 朝間披榛拂石題詩處 卽二娘所居也. 『신라수이전의 집교와 역주』, p.122.

17) 往來誰顧路傍墳. 『신라수이전의 집교와 역주』, p.123.

『최치원』은 여타 공간의 확보를 철저히 배제 혹은 생략함으로써 주체의 행위가 단일한 공간에서 정체(停滯)된다. 이때 공간의 배분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두 여귀가 자신들의 사연을 ‘기억의 서술’로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⁸⁾ 즉 여귀들의 생전 활동 공간이 형성되지 않고 요절할 수밖에 없었던 기억만을 간략하게 떠올리는 것으로 서사를 연결했다는 말이다. 이와 같은 공간의 배제 혹은 생략은 여귀의 환경을 정태적으로 굳히며 인물의 폐쇄성과 고립된 성격으로 연결 짓는 전형적 특질을 낳았다.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에 이르면 여귀의 정태적 행보가 유연해지는 것을 목격한다. 『만복사저포기』의 여귀는 개령동 무덤(그녀의 등장이 거기서부터 서술되지는 않았지만, 만복사, 사하촌, 개령동 무덤, 보련사 등지로 운신한다. 『이생규장전』의 최랑은 이생과 살았던 옛집, 부모의 주검이 흩어진 들판, 다시 옛집 등지로 운신한다. 자신의 명이 다한 비운의 자리에서 소망을 발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치원』의 정태적 행보와 성격과 닮아 있지만 여귀의 행보가 새롭게 생성하지는 않는다. 『만복사저포기』의 여귀가 바라는 소망은 꽃다운 나이에 비명횡사한 비극을 치유해 줄 연분을 만나는 것이다. 『이생규장전』의 여귀가 바라는 것은 사랑하는 남편과의 못다한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두 여귀는 원망(願望)을 충족했고 각기 천상계의 이치대로 이승을 떠난다. ‘무덤’이라는 고립된 환경에서 벗어나 외압으로 단절된 소망을 실현하는 새로운 세상을 확보한 데서 여귀인물의 능동적 성향이 강화되고 있다.

『하생기우전』의 여귀는 ‘무덤’ 공간에서 아예 현실계로 단절된 삶을 확장하는 동태적 행보를 보여준다. 앞선 작품 안의 여귀들이 초월계의 논리를 앞세워 초연히 이승을 떠났다면, 『하생기우전』의 여귀는 현실계의 논리

18) 김현화, 『고전소설 공간성의 문예미』, 보고사, 2013, p.35.

를 앞세워 이승으로 복귀하는 동태적 행보로 전환한다. 그녀의 영육이 귀환 가능했던 이유는 조정의 중신인 부친이 수십 명을 살려 준 선업 때문이었다.¹⁹⁾ 그녀를 죽게 했던 것도 부친의 악행 때문이니 앞뒤 일의 개연성을 갖추고 있다. 앞선 작품의 여귀들이 갖추지 못했던 귀환 배경이다. 그녀들이 정태적 행보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남주지인공과의 일대일 관계 외에는 달리 구명의 길을 찾을 수 없었다는 데 있다. 『하생기우전』의 경우 여귀인물과 관련한 인간관계의 확장을 염두에 둔 창작 의식을 엿볼 수 있다.

『하생기우전』의 여귀가 전형적 여귀 행적에서 벗어나 동태적 행보를 하게 된 데는 ‘사홀’이라는 명계의 시간도 영향을 끼쳤다. 여귀가 이승에 머문 시간이 오래 될수록 현실계로 편입할 확률이 낮다. 인간과 귀신은 한 세계에 공존할 수 없다는 인식 위에서 여귀는 언젠가는 저 세상으로 떠나야 할 대상이다. 최치원과 양생, 이생 등이 만난 여귀들은 모두 몇 년씩 이승을 떠도는 존재들이었다. 이미 영혼과 육신이 흩어져 흔적조차 남지 않았을 시간이다. 그런데도 그녀들은 여전히 생전의 모습 그대로 젊고 아름답다. 불노(不老) 형상의 여귀가 주는 정조는 그래서 더욱 애잔하고 스산하지만 그만큼 현실계로 재편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런 대상들이 홀연히 이승으로 복귀하는 것은 작가와 독자 모두 공감하기 어려운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하생기우전』의 여귀는 죽은 지 불과 사홀째인 몸이다. 영혼도 육신도 제 형태 그대로 아직 이승에 남아 있을 법하다고 모두가 공감할 만한 시간

19) 정규식은, 결국 여인의 육체는 존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제도와 권력이 각인된 상태로 존재하며 어떠한 목적을 위한 도구화에 머문다고 보았다. 그러며 이를 ‘육체의 사물화’로 명명했다. 『최치원』은 팔랑과 구랑의 육체가 가부장적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사물화 되는 현상이,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은 여인의 육체가 전쟁과 정절 이데올로기에 의해 사물화 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작품이라고 해석했다.(정규식, 앞의 논문, p.241)

이다. 여귀가 이승에 재편되어 혼사 장애라는 현실적 문제를 겪는 사건이 어색하지 않은 것도²⁰⁾ 바로 ‘사흘’이라는 짧은 시간의 공로 덕분이다. ‘살아 올 법하다’는 인식이 가능한 범위의 시간이다.

이처럼 『하생기우전』의 여귀는 전대의 전형적 여귀인물이 지닌 정태적 행보에서 벗어나고, 공감 불능의 시간관념에서 탈피하며 현실성을 갖춘 등장인물로 전환한다. ‘여귀=무덤=저승’이라는 도식적 인상은 『하생기우전』에 이르러 소망 충족과 행복한 결말이라는 새로운 서사로 변모한다. 전대의 전형에서 벗어난 동태적 시공간의 축조는 곧 여귀인물의 능동적 행보에서 출발한 것이다.

2. 다중 목격자의 출현

공감 가능한 귀신의 정체는 “내재적으로 길러온 위험성의 요인이나 사회가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은폐한 불행지수를 지시하면서 이제 어떠한 방향 전환을 모색해야 할지에 관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 ‘모두’의 문제로서 사유”²¹⁾하도록 한다. 『하생기우전』의 여귀는 이러한 인식과 상통하는 인물이다. 그녀가 함의한 불온한 현실의 불행지수, 그녀의 행적에 따라(행·불행의 결과에 따라) 현실의 불행지수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 여귀인물은 이제 더 이상 개인적 문제로 생을 마감한 대상으로 목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함의한 채 죽어야 했던 대상으로

20) 이와 같은 논리는, “현실의 공간이 일정한 시간 동안 환상의 공간으로 꾸며지기 때문에 환상세계에는 현실적 성향이 아주 강하다. 환상세계가 현실세계 속에 놓여 있음을 감안할 때, 환상세계를 일방적으로 현실세계의 대립항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을 시사한다.(신태수, 『귀신등장소설의 본질과 그 변모과정』, 『어문학』76, 한국어문학회, 2002, p.405)

21) 최기숙, 앞의 책, p.175.

목격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귀의 존재를 보게 되는 목격자²²⁾의 몫이 커질 수밖에 없다.

생시의 눈으로 귀(鬼)를 보는 목격자의 출현은 그만큼 여귀인물이 내포한 사회적 문제를 가장 현실적인 눈으로 보겠다는 의식을 반영한 결과이다. 과거 『최치원』의 여귀들은 오로지 남자주인공의 눈에만 목격되었던 고혼이다. 강제 혼 때문에 요절한 개인적 비극사를 보듬어 주고, 귀(鬼)의 형상이나마 여귀들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줄 목격자는 최치원 단 한 사람에게 그쳤다. 팔낭자와 구낭자가 당시의 통념과 인습에 죽음으로 항거했던 생전의 행적에 비하면 쓸쓸하고도 적막한 처우가 아닐 수 없다.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의 여귀 역시 이승의 목격자가 복수로 등장하지는 않는다. 다만 팔낭자와 구낭자에 비해 저승의 목격자들이 다수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팔낭자와 구낭자의 경우 시비 여귀가 하나 등장할 뿐이다. 『만복사저포기』의 여귀는 시녀뿐만 아니라 정씨, 오씨, 김씨, 유씨 등의 이웃한 여귀들에게 그 행적이 목격된다. 이들은 양생과 여귀의 인연이 성사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목격자로 등장한다. 그 외에 현실계의 목격자는 등장하지 않는다. 양생의 곁에 분명히 그녀가 동행하고 있음에도 이승의 목격자는 등장하지 않는다. 여귀가 양생을 데리고 개령동 무덤으로 이동할 때라든지, 보련사에서 해후하고 함께 천도의식을 치를 때에도 이승의 목격자는 보이지 않는다. “길 가는 사람들은 양서생이 여인과 함께 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²³⁾, “친척들과 승려들은 모두 그녀를 보지 못

22) 최기숙은, 여귀와 마주치게 되는 “목격자는 산 채로 사후 세계를 미리 체험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은 동시에, 귀신의 불운에 동참해 운명 공동체를 이룬다.”고 언급했다.(최기숙, 앞의 책, p.14)

23) 而行人不知與女同歸. 『금오신화』, 이재호 역, 숲, 1998, p.56. 이후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의 인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 책의 면수만 적기로 한다.

하고 유독 서생의 눈에만 보일 뿐이었다.”²⁴⁾, 하는 식으로 이승의 목격자로 부터 배제된 존재로 등장한다.

『이생규장전』의 목격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여귀가 되어 이생을 찾아온 그녀를 목격하는 사람은 남자주인공 한 사람에 불과하다. “이서생은 이로 부터 인간의 모든 일을 완전히 잊고서 친척과 손님의 길흉사에도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으며 아내와 즐거이 세월을 보냈다.”²⁵⁾라는 표현에서 그가 수년 동안 아내를 잃은 상실감으로 칩거하는 인물로 내비친다. “시비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루춘곡에 맞추어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이 서생에게 술을 권했다.”²⁶⁾란 장면에 등장하는 시비가 산 사람인지 전대의 작품 안에서 여귀를 섬기며 등장하던 시비의 전형을 이어받은 여귀인지는 불분명하다. 작품 안에 여귀로 돌아온 아내를 목격했다는 산 사람의 증언이 따로 없으니 아마도 시비 역시 피란 중에 여주인과 함께 죽은 귀(鬼)일 것이다.

이처럼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의 여귀는 저승의 목격자가 다수로 늘어난 반면 여전히 이승의 목격자는 등장하지 않는 대상이다. 『최치원』의 여귀처럼 아직 그녀들의 죽음은 개인적 비극사에 머물 뿐 그에 동참하는 의식을 보여주는 목격자의 출현을 거부한다. 사회적 통념과 제도, 관습과 도리에 순응한 여귀들의 죽음을 높이 치하하는 길은 저승의 목격자와 그들의 증언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인식이 엿보인다.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 유명이 다르다는 사실을 수증하고 마지막에는 저승으로 떠나는 여귀들의 모습에서 절대적 천리에 빚댄 사회적 인습과 통념의 벽이 살아 있다.

『하생기우전』의 여귀는 이승의 목격자가 등장하는 대상으로 전환한다.

24) 親戚寺僧 皆不之信 唯生獨見. 『금오신화』, p.59.

25) 雖親戚賓客賀弔 杜門不出 常與崔氏 荏苒數年. 『금오신화』, p.96.

26) 命婢兒進酒 歌玉樓春一闋 以侑生. 『금오신화』, p.96.

그도 그럴 것이 이 작품의 여귀는 과거의 정태적 시공간을 뛰어넘어 아예 현실계로 복귀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녀가 아직 혼신(魂神)으로 머물 당시부터 이승의 목격자는 등장한다. 바로 낙타교 가의 복자이다. 하생이 자신의 불운을 타개하고자 그를 찾아갔을 때 그날 밤 도성 남문 밖에서 가연을 얻을 것이란 쾌를 준다. 그의 예언대로 하생은 여귀를 만나 인연을 맺게 된다. 여귀가 있는 명계로 하생을 보낸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는 잠재적 목격자라고 할 수 있다. 그간 여귀들이 남자주인공과 일대일의 관계에서 목격된 것에 비하면 현실적 개연성을 갖춘 목격자이다.

여귀를 목격하는 현실계의 인물들은 계속 등장한다. 여귀와 인연을 맺었다는 하생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부친이 직접 무덤으로 찾아가는 장면에서 다수의 목격자가 등장한다. 부친인 시중은 물론 유모 할미, 노비 등이 모두 여귀가 생시 때의 모습 그대로 무덤 속에 누워 있는 것을 목격한다. 뿐만 아니라 그녀가 집으로 옮겨진 이후에 정신을 차리는 모습도 부모를 비롯한 온 집안사람들이 목격한다. 『만복사저포기』 역시 여귀가 남자주인공의 중개로 부모와 재회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처럼 현실계의 목격자 시선 속에서 대면하지 않는다.

전대의 작품에 나오는 여귀들의 목격자가 남자주인공을 제외하곤 모두 저승의 존재였다는 것과 비교할 때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다수의 목격자는 여귀의 현실계 복귀를 인정하는 증인 역할을 한다. 그들의 인정을 받고 여주인공은 하생과 혼인해 완전히 현실계로 재편되는 삶을 산다. 한편으로는 여귀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작가의 의도이기도 하다. 그녀가 함의하고 있는 불운한 현실 문제를 은연중 표출하는 것이다. 『하생기우전』의 여귀는 저승의 시선 비중보다 현실계의 시선 비중이 커지면서 전대의 작품들에 비해 한 단계 유기적 서사를 구성하는 전환을 거두었다고 할 것이다.

3. 동일시 세계의 구축

『하생기우전』은 여귀인물을 통해 은폐된 문제가 현실 세계에서 여전히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작품이다. 그리고 이 은폐된 문제가 남자 주인공인 하생이 직접 제시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와 맞닿아 있어 작품의 주제를 선명하게 하는 추동력으로 작동한다. 단순히 전기성을 표방한 낭만적 애정소설로 자리 잡지 않고 ‘사회의 부조리를 직접 문제 삼고 있다’²⁷⁾에서 이 작품의 소설적 가치가 높다. 곧 여귀를 통해 당대의 독자와 교감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개인 문제에 머물러 있던 전대의 여귀인물 역할이 보다 입체적 성격의 역할로 전환한 사실을 의미한다.

『최치원』의 여귀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진행된 늑혼 문제로 요절한 인물들이다. 팔낭자와 구낭자의 자유 의지를 묵살한 부친의 권력은 곧 사회적 통념과 제도의 우의적 상징이 될 것이다. 그 아래서 자유혼의 꿈을 잃고 청춘의 나이에 요절할 수밖에 없었던 여귀들의 사연은 비애감을 준다. 이 문제가 최치원이라는 남자주인공의 현실적 문제와 연결되지 못하고 개인적 비극사로 머물고 말기 때문에 “작품의 경험과 독자의 반응이 화합될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²⁸⁾, 곧 “현실을 소설 속에 재현하겠다는 의지, 우리가 공감이라고 부르는 동일시 세계”²⁹⁾의 축조가 모호해졌다. 타국 땅에서의 외롭고 고단한 심회를 표출하느라 쌍녀분을 찾았던 최치원의 심정과 강제 혼으로 요절한 여귀들의 한은 현실에서 조합해 볼 수 없는 관념적인 ‘그 무엇’을 남기고 낭만적 조우로 남고 말았다.

27) 최재우, 앞의 논문, 1999, p.199.

28) 이상섭, 『문학 연구의 방법』, 탐구당, 1972, p.147.

29) 김천혜, 『소설 구조의 이론』, 문학과 지성사, 1990, p.235.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의 여귀가 보여주는 정한(情恨)은 보다 구체적으로 표출된다. 이 여귀들은 전쟁의 피해자로 등장하는데 각각 남자 주인공의 정한과 공감하며 『최치원』의 단편적 서사에 비해 개연적이고 사실적인 서사로 발전한다. 즉 여귀인물과 현실계의 남자주인공의 문제가 서로 상통할 수 있는 것이어서 서사가 연쇄적으로 촉발하는 기능을 한다. 절간 방에 의탁해 살아야 하는 한미한 양반 신분의 남자와, 한때는 귀족 가문의 여인과 혼인해 행복한 삶을 꾸렸던 남자의, 고독하고도 비감어린 현실은 작품과 독자 사이에 동일시할 수 있는 세계를 축조해 놓는다. 또한 전란의 희생자로 3년째 야산에 묻혀 있던 여귀와, 사랑하는 배우자와의 삶이 전쟁이라는 외압으로 단절된 여인의, 적막하고도 비통어린 상황 역시 작품과 독자 사이에 동일시할 수 있는 세계를 축조해 놓는다. 비록 양 작품의 여귀인물과 남자주인공이 천상계의 논리에 부합해 현실에서 종적을 감추기는 하지만, 당대인의 관점에서 동일시해 볼 수 있는 세계를 구축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하생기우전』은 여기에서 한 발 나아가 현실 안에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을 다루며 작품과 독자 사이의 공감을 형성한다. 하생은 ‘부귀공명’이라는 현실적 가치를 추구한다. 애정류 전기소설 가운데 부귀공명에 대한 이처럼 강렬한 욕망이 나타난 경우는 『하생기우전』이 처음이며, 애정은 이를 성취하기 위한 매개적 기능을 하고 있다는 논점³⁰⁾이 설득력을 얻는 것은 당대인이 공감할 만한 동일시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여귀의 현실적 문제와 하생의 현실적 문제가 동질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여귀가 봉착한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①여귀는 죽은

30) 권도경, 『16세기 기재기이의 전기소설사적 의의 연구-현실성의 확대와 주체의 의지 강화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통권6, 한국고전연구학회, 2000, p.51.

지 사흘째 된 몸이다, ②여귀의 부친은 조정의 시중이다, ③부친은 사소한 원한으로도 복수하고 모략하여 사람을 많이 해치다, ④부친이 옥사를 심리 하여 죄 없는 사람 수십 명을 구명해 주다, ⑤그 선행으로 옥황상제가 여귀를 살려주기로 하다, ⑥하생과 만난 오늘이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한이다. ①⑤⑥은 운명론에 얽힌 개인적 문제이지만, ②③④는 가정, 나아가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라는 점에서 여귀가 구축한 동일시의 세계는 매우 현실적이다.

반면에 하생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봉착해 있다. ①하생은 대대로 가난한 집안의 후손으로 조실부모한 채 미장가의 처지로 살다, ②고을의 수령이 하생의 뛰어난 재주를 듣고 태학에 추천하다, ③국학에 나아가 여러 서생과 예능을 겨루매 하생을 능가할만한 자가 없다, ④그러나 조정이 부패해 공정한 인재 선발이 이루어지지 않다, ⑤하생은 45년을 울적하게 지내다. 하생에게 희망으로 다가왔던 것이라곤 ②와 ③뿐이다. 나머지는 하생의 현실을 고단하게 하는 외부 환경이다. 하생이 봉착한 문제는 하나같이 당대인의 삶 안에서 공감할 만한 것들이어서 동일시의 세계를 형성하는 데 적격이다.

여귀가 봉착한 현실적인 문제는 부친의 부당한 권력과 관련 있다. 부친은 조정에서 시중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음해와 모략을 일삼았다. 시중을 통해 당대의 불온한 정치 현실을 짚어볼 수 있고, 하생과 같은 재능 있는 인재가 45년을 학사에 머물며 시험을 치러도 인재로 발탁되지 못했던 현실도 증첩시켜 볼 수 있다. 『하생기우전』은 여귀와 하생의 현실적인 문제가 서로 발화 작용을 하며 당대의 현안 문제를 실토했다. 여귀인물의 역할이 전대의 작품에서와 달리 능동적 인물로 전환한 것을 의미한다. 작품 초반 하생의 현실 문제가 먼저 불거진 것도 사실은 여귀의 부친으로 상징된 불온한 권력이 득세해 조정이 혼탁했기 때문이다.

하생이 안고 있는 입신양명의 험난한 길은 애초 여귀의 잠재적 역할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길을 터 준 것도 현실계로 복귀한 여귀의 역할이었다. 여귀인물의 역할이 단순히 비애감을 상징하는 데서 벗어나 한 시대의 공감할 만한 현안 문제에 닿아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해 『하생기우전』의 여귀인물은 사건의 발생과 해결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성격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여귀인물의 성격 전환 의미

소설적 전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서사적 계보로 내려오던 전형적 인물의 새로운 탈바꿈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작가는 인물을 통해 세상에 대한 ‘말하기 욕망’을 실현하고 당대의 현실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하생기우전』의 여귀인물은 이런 관점에서 기존의 여귀들과 달리 서사에 능동적으로 개입하고 활약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성격 전환은 계층 간의 소통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또 관습적 문학 공간의 탈피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소설 작품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 관심을 두었던 작가의 창작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1. 계층 간의 소통 실현

여귀인물이 맨 처음 교섭하는 현실계의 인물은 남성, 그것도 문장을 갖춘 인물이란 공통점을 갖는다. “한문 해득력을 지닌 사대부 남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향유”³¹⁾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데, 『최치원』의 여귀도, 『만복사

31) 최기숙, 앞의 책, p.22.

저포기』와 『이생규장전』의 여귀도, 『하생기우전』의 여귀도, 그와 같은 계층의 남자주인공에게 먼저 목격된다. 그리고 그들과 시를 수창하고 인연을 맺는다. 여귀들은 남자주인공과 대등한 학식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흠모할 만한 도덕적 수양과 인성을 쌓은 인물들이다. 그녀들이 굳이 사대부 계층의 남자에게 목격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드러난다. 남자주인공과 대등한 조건을 갖춘 인물인 만큼 그녀들의 발언이 신뢰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면 여귀와 남자주인공의 사회적 계층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여귀와 남자주인공이 서로 버금가는 내외적 자질을 갖추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의 관계는 권세 가문과 한미한 가문의 자손으로 나뉜다는 사실이다. 『최치원』의 여귀는 당나라 율수현 초성향의 호족 가문의 딸들이다. 여귀의 선친은 현의 관리는 하지 않았지만 부유함으로 가세를 떨쳤다고 하니 그 지역의 내로라하는 권세 가문이었다. 한편 최치원은 신라에서 건너와 율수 현위 자리에 오른 인물로, 여귀의 집안에 대면 이제 말단 관리에 오른 처지이다. 『만복사저포기』의 여귀 역시 귀족 가문의 일원이다. 그녀와 인연을 맺는 양생은 절간 방에 의탁해 사는 궁핍하고 한미한 양반 출신이다. 『이생규장전』의 여귀 역시 생전에 귀족 집안의 여식으로 이생의 가문을 압도한다. 이생의 가문은 그의 부친 말대로 노복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친척들마저 도와주지 않아 살림이 궁색한 집안이다. 『하생기우전』의 여귀 가문은 부친이 조정의 시중 자리에 앉아 있는 집안이다. 그에 비해 하생은 대대로 궁핍한 집안의 자제로 조실부모한 채 미장가의 처지이다.

여귀와 남자주인공의 만남은 두 계층 혹은 그들이 함의한 보다 다양한 계층 간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하생기우전』의 여귀 인물에 이르러서야 계층 간의 현실적인 소통에 대해 말하

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즉, 여귀 인물의 성격 전환에 힘입어 계층 간의 문제점이 직설 화법으로 제시되고, 그에 대한 소통을 했다는 의미이다. 전대의 여귀들이 자신의 비극사를 남자주인공에게 토로하고 위안 받으며 초월 계로 떠난 것과 비교할 때 의미 있는 부분이다.

『하생기우전』의 여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계층 간의 소통을 시도한다. 첫 번째 역할은 조정의 중신인 부친의 악행을 통해 관계(官階)의 불온한 현실을 직접 제시하는 언급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정한 인재 선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조정의 문란한 현실이 부친과 같은 중신들의 폐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드러낸다. 그래서 하생처럼 재주는 뛰어나지만 한미한 기문의 일원은 등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증언한다. 이와 같은 상하 계층 간의 불화를 해결하는 인물이 바로 여귀이다. 사흘의 말미를 두고 인간세계로 돌아가야 하는 여귀의 다급한 소망은 하생을 만나 이루어진다. 하생은 여귀의 집안에 이 사실을 알리고 그녀가 인간으로 귀환하는 데 일조한다. 그 덕분에 그녀와 혼인해 관계에 발을 들인 뒤 상서령에 이르는 입신양명의 꿈을 이룬다.

하생과 여귀의 부친은 가장 현실적인 문제 위에서 서로 얽혀 있는 관계였다. 조정을 문란하게 한 인물과 그로 인해 등용의 문을 얻지 못한 인물이다. 이들 사이에 여귀의 환생이라는 초월계 논리가 개입한 것은 계층 간의 불화를 무마시켜 보고자 했던 소설적 장치이다. 계층 간의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짚어내고 있기 때문에 여귀의 성격 전환은 그래서 더욱 의미가 크다. “하생의 출세담이 애정담으로 교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생기우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회적 문제의식을 서사의 중심축으로 다루고”³²⁾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32) 안창수, 앞의 논문, p.170.

여귀가 상하 계층 간의 소통 실현에 개입하는 두 번째 역할은 혼사 장어를 극복하는 과정 중에 보인다. 시중은 여식을 살려 준 보답으로 하생을 사위로 삼고자 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번성한 가문과 달리 하생의 집안이 한미한 사실을 알고 혼사 치르기를 주저한다. 시중은 하생에게 답례품을 전달하는 것으로 고마움을 전달한다. 하생은 앞날을 약속했던 여인의 말을 원망하며 그 집을 떠난다. 시중과 하생이라는 인물로 표현되고 있지만, 이는 당대의 득세한 집단과 실세한 집단의 갈등을 상징하는 불화 관계로 접근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인물 역시 여귀이다. 그녀는, 부모가 하생을 배반했다는 사실을 알고 음식을 끊은 채 혼인을 허락해 줄 것을 요구한다. 시중이 딸의 요구를 수락하고 두 인물은 부부가 되어 두 아들을 낳으며 사십여년을 함께 살게 된다. “하생과 시중으로 대표되는 세력 사이의 상징적 화합”³³⁾을 다루고 있다는 관점이 설득력을 얻는 것은 여귀 인물의 역할이 긍정적 매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생기우전』의 여귀가 속했던 “환상계는 상층인과 하층인, 이계와 속계, 인간과 사물이 별 다른 차별 없이 어우러진”³⁴⁾ 화해와 평등의식을 바탕으로 한 세계이다. 『하생기우전』의 여귀는 이러한 전통적 환상계의 화해와 평등의식을 현실계로 소통시켜 보고자 시도한 인물이다. 운명론적 세계관을 완전히 탈피한 인물은 아니지만 여귀의 성격 전환은 계층 간의 소통을 실현하는 데 작품 내외적으로 기여한다. 여귀는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대처 방식을 보여줌으로써 계층 간의 소통을 도모하는 존재로 거듭난다.

33) 윤재근, 『기재기이의 창작배경과 그 소설적 의미-수사적 만연성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29, 월인, 2006, p.365.

34) 신태수, 앞의 논문(2004), p.146.

2. 관습적 문학 공간 탈피

『하생기우전』은 남자주인공의 현실 극복에 대응할 만한, 혹은 기반이 될 만한 환경을 여귀가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독창적이다. 반면에 여귀는 적극적으로 삶을 개척해 보겠다는 하생의 의지를 발판으로 현실계로 넘어오는 추동력을 얻는다. 이런 과정에서 여귀와 하생은 관습적으로 전해온 공간의 틀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여귀의 거처는 무덤이다. 이 무덤이야말로 여귀의 비밀이 닫히고 풀리는 전형적인 관습적 공간이다. 여귀는 사회적 통념과 관습을 거부하지 못한 채(혹은 순응한 채) 요절하거나 자결한 인물이다. 무덤은 개인적 비극사가 담긴 적막한 곳일 뿐 현실적인 문제를 부각시킨 공간은 아니었다. 여귀가 고향으로 떠돌며 지냈던 한스러운 지난날에 대한 토로, 이루지 못했던 소망에 대한 안타까움, 꽃다운 청춘에 인연을 맺지 못한 고독감 등이 주조를 이루는 공간이다.

『하생기우전』은 그동안 개인적 비극사를 묻어 두었던 관습적 무덤 공간에 사회적 문제를 함의한 비밀을 묻게 된다. 이 작품의 무덤 공간은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라거나 자유 의지를 잃은 상실감으로 명을 단축한 그런 사회적 통념이나 관습의 희생자가 묻힌 곳이 아니다. 초월계의 개입으로 명을 다하지 못한 여귀가 묻힌 곳이다. 그녀가 요절한 근본적 이유는 권신인 부친의 악업 때문이다. 다섯 오빠가 먼저 명을 달리한 것도 부친의 악행 때문이다. 그녀는 권력의 요직에 앉아 술한 폐단을 일으킨 부친에 대한 징벌의 상징으로 희생된 인물이다. 그런 인물의 공간이기 때문에 전대의 여귀가 묻힌 공간과 성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여귀의 무덤 공간 성격이 달라지면서 남자주인공의 환경 또한 그 성격이 달라진다. 작품 초반에 드러난 하생의 모난 현실은 여귀의 무덤 공간과

상관없어 보인다. 그러나 국학에서 수학하기를 4,5년째 잇고 있지만 도무지 과거 길이 열리지 않을 뿐더러 혼탁한 조정 형세로 공정한 인재 선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 등은 여귀의 무덤 공간과 깊은 관련이 있다. 여귀의 부친이 조정의 요직에 앉아 득세하고 있었고, 그러한 난행으로 알게 모르게 하생과 같은 한미한 가문의 인물들이 등용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귀의 무덤 공간이 초반부터 서사의 갈등에 긴밀하게 참여하는 새로운 성격으로 변모한 사실이 드러난다.

과거 여귀의 무덤은 개인의 비극적 정회를 풀어 줄 인연에 대한 소망처였다. 외롭고 적적한 고향을 위무해 주는 인연을 만나고 나면 기꺼이 떠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래서 남자주인공 역시 세상에서 요구하는 현실적 가치보다 여귀가 보여주고 떠난 초월적 가치에 매료되어 입산하거나 죽음을 맞이하는 행보로 나아간다. 반면에 『하생기우전』의 하생은 출세와 애정 성취라는 현실적 소망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임한다.

출세를 하기 위해서도, 애정을 성취하기 위해서도, 그는 서사 초반부터 여귀의 무덤 공간과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는 불운을 타파하고 공명을 이루기 위해 무덤 공간으로 향했고(국학에서의 울적한 나날이 공명을 이루지 못한 까닭이므로), 여귀와 혼인해 부귀한 삶을 누리기 위해 무덤 밖의 세상으로 나왔다(앞날을 약속한 그녀의 부친이 조정의 권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이므로). 하생의 전후 사고와 행위는 여귀의 무덤 성격과 깊은 연관이 있다.

『하생기우전』이 “한국 전기소설사에서 처음으로 도덕적인 선악의 문제를 전기소설의 갈등구조로 형상화”³⁵⁾했다는 의미를 갖는 것도 결국 이와 같은 관습적 문학 공간의 성격 변모와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울러 그러한

35) 유정일, 『기재기이 연구』, 경인문화사, 2005, p.265.

공간의 성격 변모는 여귀인물의 성격 전환에서 이루어진 것이란 사실까지 짚어볼 수 있다. 여귀는 더 이상 “전기적 인간의 미적 특질로 회자되는 ‘내면성’에 치우친”³⁶⁾ 남자주인공의 부수적 그림자가 아니다. 그녀는 충분히 당대인이 교감할 만한 동시대 세계의 주역으로 성장했고, 사회적 문제를 노출하는 주역으로 전환했다. 과거 운무와 덤불에 가려 황량하기만 했던 그녀의 무덤 공간이 권력과 암투, 성공과 출세에 대한 욕망을 담은 현실적 공간으로 변모한 사실은 여귀인물의 성격 전환이 갖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이다.

IV. 결론

본 논문은 『하생기우전』의 여귀인물이 전대 작품의 인물 전형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격으로 탈피하는 시도에 주목했다. 여귀는 불완전한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실계로 복귀하는 인물로, 소설적 주체의 의지 표명과 흐름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존재이다.

II장에서는 『최치원』, 『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 등의 작품에 나오는 여귀의 전형(典型)에서 벗어나 입체적이고 현실적인 인물로 전환하는 『하생기우전』의 여귀 양상을 세 가지로 살펴보았다.

첫째, 동태적 행보의 여귀라는 점이다. 앞선 작품의 여귀들이 초월계의 논리를 앞세워 이성을 떠났다면, 『하생기우전』의 여귀는 현실계의 논리를 앞세워 이성으로 복귀하는 동태적 행보를 보여준다. 앞선 작품의 여귀들이 무덤에 머무는 정태적 행보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남자주인공과의 일대일 관계 외에는 달리 구명의 길을 찾을 수 없었다는 데 있다. 여귀가 그처

36) 박희병,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p.41.

럼 동태적 행보를 할 수 있었던 이유로, 그녀가 죽은 지 불과 사흘 밖에 되지 않았다는 시간의 기능도 크다. 다시 '살아 돌아올 법하다'라는 인식이 가능한 시간이다.

둘째, 『하생기우전』의 여귀는 그간의 여귀인물과 달리 이승의 목격자가 다수 등장하는 인물로 전환한다. 그간의 목격자들이 남자주인공을 제외하곤 모두 저승의 존재였다는 것과 비교할 때 상당한 변화이다. 다수의 목격자는 여귀의 현실계 복귀를 인정하는 증인 역할을 한다.

셋째, 『하생기우전』의 여귀는 당대인이 공감할 만한 '동일시의 세계'를 구축하는 인물로 전환한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여귀의 현실적 문제와 남자주인공의 현실적 문제가 동질성을 띠기 때문이다.

Ⅲ장에서는 이와 같은 여귀인물의 성격 변화가 갖는 소설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첫째, 『하생기우전』의 여귀는 권력을 가진 세력과 잡지 못한 세력, 제도권 안의 계층과 제도권 밖으로 소외된 계층, 이 상하 계층 간의 소통을 시도한 인물이다. 여귀는 운명론적 세계관을 완전히 벗어난 인물은 아니지만 화해와 평등의식을 현실세계에 소통시킨 인물이다.

둘째, 『하생기우전』의 여귀는 관습적으로 내려오던 문학 공간의 성격을 탈피하는 데 기여한다. 여귀의 무덤은 사회적 문제를 비밀로 간직한 곳이다. 여귀의 무덤 공간 성격이 달라지면서 남자주인공의 환경 또한 현실적 문제를 드러내는 공간으로 전환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하생기우전』의 여귀는 당대인이 충분히 공감할 만한 세계를 구축하며 사회적 문제를 노출시키는 존재로 거듭난다. 권력과 압무, 성공과 출세에 대한 사실적 욕망을 담은 무덤 공간으로 변모한 사실은 그녀가 그만큼 당대의 현실을 투영하는 현실적 인물로 전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등장인물의 서사적 계보를 살피고 그들의 역할에 관심을 가졌던 작가의 창작의식에 접근해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권도경, 『16세기 기재기이의 전기소설사적 의의 연구-현실성의 확대와 주체의 의지 강화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통권6, 한국고전연구학회, 2000, pp.33-58.
- 김시습, 『금오신화』, 이재호 옮김, 솔, 1998.
- 김천혜, 『소설 구조의 이론』, 문학과 지성사, 1990, p.235
- 김현화, 『고전소설 공간성의 문예미』, 보고사, 2013, p.35.
- 박태상, 『하생기우전의 미적 가치와 성격』, 『조선조 애정소설 연구』, 태학사, 1996, pp.83-136.
- 박헌순 역주, 『기재기이』, 범우사, 1990.
- 박희병,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p.41.
- 소인호, 『한국전기문학연구』, 국학자료원, 1998, p.229.
- 소재영, 『기재기이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0.
- 신광한, 『기재기이』, 박헌순 옮김, 범우사, 1990.
- 신상필, 『기재기이의 성격과 위상』, 『민족문화사연구』24, 민족문화사학회 민족문화연구소, 2004, pp.188-215.
- 신태수, 『귀신등장소설의 본질과 그 변모과정』, 『어문학』76, 한국어문학회, 2002, pp.389-416.
- , 『기재기이의 환상성과 교환 가능성의 수용 방향』, 『고소설연구』17, 한국고소설학회, 2004, pp.133-164.
- 안창수, 『하생기우전의 문제 해결 방식과 작가의식』, 『한민족어문학』49, 한민족어문학회, 2006, pp.151-192.
- 유기옥, 『기재기이의 소설사적 의의』, 『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 전주우석대학, 1992, pp.361-377.
- 유정일, 『기재기이의 전기소설적 특징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논문, 2002.
- , 『기재기이 연구』, 경인문화사, 2005, p.265.
- 윤채근, 『기재기이의 창작배경과 그 소설적 의미-수사적 만연성(蔓衍性)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29, 월인, 2006, pp.339-375.
- 이검국·최환, 『신리수이전 집교와 역주』, 영남대 출판부, 1998.
- 이상섭, 『문학 연구의 방법』, 탐구당, 1972, p.147.

- 정규식, 『하생기우전과 육체의 서사적 재현』, 『한국문학논총』53, 한국문학회, 2009, pp.231-261.
- 정운채, 『하생기우전의 구조적 특성과 서동요의 흔적들』, 『한국시가연구』2, 한국시가학회, 1997, pp.171-198.
- 채연식, 『하생기우전의 구조와 전기소설로서의 미적 가치』, 『동국어문학』10·11합집,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999, pp.85-106.
- 최기숙, 『처녀귀신-조선시대 여인의 한과 복수』, 문학동네, 2010, p.14-175.
- 최재우, 『기재기이의 장르적 특성과 형상화 의미』,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7.
- _____, 『하생기우전의 결핍-충족 구조와 그 의미』, 『민족문학사연구』15, 민족문학사연구소, 1999, pp.197-226.

Abstract

An aspect of the YeoGwi's character change and the meaning in
『Hasaenggiujeon』

Kim, Hyun-Hwa

The YeoGwi in 『Hasaenggiujeon』 is the character who overcomes the imperfect corporeal limitations and returns to human world. Even though it was the character who returned in the shape of fantasy rebirth, she was the existence with meaning of expressing the will of the subject for novel and of showing the stream. There are three aspects that can be changed to the three-dimensional and realistic character as following, getting out of a model of 『YeoGwi』 in the earlier works such as 『Choichiwon』, 『Manboksajeopogi』 and 『Leesaenggyujangjeon』.

First, it is a YeoGwi of dynamic walk. The YeoGwi in the earlier works died setting the theory of the fantasy world, on the other hand, the YeoGwi in 『Hasaenggiujeon』 showed the dynamic walk for returning to this world setting the theory of the real world. The reason why the earlier YeoGwis couldn't get out of static dynamic walk is that they couldn't find another way for saving their life but one-to-one relationship with a hero. In the case of 『Hasaenggiujeon』, her farther including a hero functioned as a savior. The extension of the relationship of individuals related with a YeoGwi has broken on our eyes.

As the reason why the YeoGwi did such a dynamic walk, the function of time played a big role, which three days have passed since her death. It means that the time can be possible to recognize as it may 'return again alive'. It makes us to think that they had a bare change for rebirth to the real world in that All YeoGwis were some years under the tomb until they appeared, because both the author and the readers don't sympathize with the time.

Second, the YeoGwi in 『Hasaenggiujeon』 changed to the character who

has many witnesses in the real world different with all YeoGwis in a while. It is a great change comparing with the characters who were finding the YeoGwis in a while were the existences in the next world but a hero. Majority of witness played a role as a witness who recognizes the YeoGwi to return to the real world. As a heroine could be recognized by them and married to a hero, she could live to reorganize her life completely for the real world.

Third, the YeoGwi in 『Hasaenggiujeon』, her character changed to the character who built 'the identical world' where the people in the day could feel empathy. The reason why it was possible to be built the identical world is that the realistic problems between YeoGwi and a hero had the same characteristics. The realistic problem of YeoGwi was related with her father's wrongful power. The YeoGwi could be reborn, after her father stopped his evil conducts. Her father made a habit of slandering and scheming in the Royal Court. We can review the messy political reality in the day by her father and the reality where the character couldn't be hired like a hero, even though having the state examination for some years. The 『Hasaenggiujeon』 got the truth out of its pending issue of the day, as the realistic problems of YeoGwi and a hero worked like igniting each other. This means that the role of the character, YeoGwi, changed to the dynamic character, unlike in the earlier work.

Such YeoGwi's character change has novelistic significant, because it was reflected the author's sense of creation, who took an interest in the social function and a role of work of fiction. The two meanings are as follow.

First, the YeoGwi of 『Hasaenggiujeon』 is the character who tried to communicate between two classes—a class who has power, a class who doesn't have power. The farther of YeoGwi did evil conducts by power. A hero couldn't be appointed for the world due to such power, even if he was gifted. To be intervened in them by the theory of the fantasy world of the YeoGwi's rebirth is a novelistic tool that covers a feud between the classes and makes them communicate. In addition, the YeoGwi intervened in communication between the classes when overcoming a conflict of marriage. The YeoGwi in 『Hasaenggiujeon』 was not the character who got out

completely of the fatalistic view of the world, but she was a character who tried to communicate reconciliation and equality awareness to the real world.

Second, the YeoGwi in 『Hasaenggiujeon』 played a meaningful role for getting out of a character in a literature space that was handed traditionally for generation. It was a tomb that led to the traditional literature space. The tomb in the works of previous generation was just the place where had the personal tragic history of the YeoGwis, not emphasizing on the realistic problems. It was the place of revealing YeoGwi's regretful past that she went around as a lonely soul, painfulness of an unfulfilled wish and feeling of loneliness that she couldn't have a relation even though being in the flower of her youth. On the other hand, the YeoGwi in 『Hasaenggiujeon』 kept the social problems as a secret in the traditional tomb. As the character of the YeoGwi's tomb changed, the circumstance of a hero changed to the space where showed the realistic problems.

As reviewing above, the YeoGwi in 『Hasaenggiujeon』 was reborn as the existence who explored the social problems setting the world where the person in the day could sympathize enough, and who didn't tear anymore for a personal tragedy. The fact that the tomb where was bleak under a rainstorm and a bush changed to the place where had the realistic desires for power and veiled enmity and success and advancement is that she changed much to the realistic character of reflecting the reality in the day. It can be said that the change of YeoGwi's character is to show the author's sense of creation, who tried to put the reality on his work.

Key Word : 『Hasaenggiujeon』, YeoGwi, the character in classical novel, personal character, traditional space, creation technique

김현화

소속 :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주소 : (305-764) 대전시 유성구 궁동 220

전화번호 : 042-821-5320 / 011-439-8354

전자우편 : kumbori@hanmail.net

이 논문은 2013년 11월 15일 투고되어
2013년 12월 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12월 10일 게재 확정됨.